



# 한울림 교회

##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 주일예배

오전 11시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교회소식	인도자
9월의기도	다같이 환우를 위한 기도
찬양*	다같이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찬9)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완전하신 나의 주
기도인도	인도자
봉헌*	다같이 만 가지 은혜를(찬 216장 4절)
말씀교독	다같이 사도행전 21:15-36
특별찬양	샤마임찬양대 주께 오라
말씀선포	김원재 “무엇이 문제인가”
찬양과결단*	다같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찬 382)
축도*	인도자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10월의 기도는 **환우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일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환우를 위한 어떤 기도제 목들이라도 교역자에게 전달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 **1부예배(9시)**가 11월부터 교사와 봉사자를 위한 예배로 시작합니다.
4. **큐티책 11월호**가 나왔습니다. 구입하셔서 큐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박순정)
5. **중보기도팀**이 다음주에(10/31) 새 예배당에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참석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정주애, 양명철)
6. **교회 비품 및 물건들**을 집에 보관하고 있는 교우께서는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거나 주일에 교회로 가져와주시기 바랍니다.
7. **삼공부 “생명의삶”**이 오늘 오후 1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8. **현장새벽기도회**가 “목~토”에 있습니다. “월~토” 영상새벽기도회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은 새벽기도회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9. 새벽기도회(오전 5:30)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10.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FM 101.5, HD Radio FM 93.5-4 토 6:30PM, 주일 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면 우리는?

우리말 ‘산(山),강(江),바다’ 중에서 ‘바다’란 말을 제외하고는 한자어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것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왜 ‘바다’만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우리말을 유지하고 있을까란 질문을 하면서, 우리말 ‘바다’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말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학술적인 근거를 댈 수는 없지만, ‘바다’의 의미가 너무 좋아서 우리 조상들이 이 말은 간직하지 않았나 생각해보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주목한 우리말이 있다면 ‘어제,오늘,내일’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제, 오늘’은 순수 우리말을 사용하는 반면 ‘내일(來日)’만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작가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리 민족이 과거에 너무나 많은 외세의 침탈을 당하면서 내일이 없는 삶을 살다보니 어느새 그 말을 잃어버렸고, 언어적 필요성에 의해 한자어 ‘내일’이란 말을 빌려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내일’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말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니 ‘미래(未來)’도 한자어입니다. 우리 민족이 외세의 침탈에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많이 보내긴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내일’이란 말의 순수우리말을 잃어버렸다는 논리를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내일이 없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요. 과거로부터 와서 현재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걱정, 염려, 두려움, 근심 등’이 내일을 잡아 먹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하기 십상입니다. 성경에 “목사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잠언 29:18)”란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자면, 비전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길을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걱정애 사로잡혀 미래없이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가 가야할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걱정과 염려가 넘쳐납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마 6:34)” 이 말씀은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의 내가 아닌 내일이 걱정하게 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란 뜻입니다. 주님은 이 구절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 걱정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꿈을 꾸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걱정은 사라지고 밝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말에 미래를 나타내는 “내일,모레, 글피, 그 글피”에서 내일을 제외하고 모두 순수우리말입니다. 한 작가의 주장을 들었습니다.